

# 광주·전남 유권자 95% 투표 의향... 66% “반드시 투표”

## 광남일보 창사 30주년 대선 여론조사

30대 73.1% 가장 높아...50대·40대·60대·20대·70대 순  
남 68%·여 63%...진보 75.3%·보수 67.1%·중도 66.8%

광주·전남지역 유권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. 이 가운데 약 3분의 2는 '반드시 투표하겠다'고 응답해 높은 실질 투표율이 예상된다. 광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에 의뢰해 광주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66명(가중 1066명)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6.3%는 '반드시 투표하겠다', 28.7%는 '아마 투표할 것'이라고 응답해 총 95.0%가 투표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. 이어 '그때 가봐야 알겠다' 3.6%, '투표하지 않겠다' 1.3%, '잘모름' 0.1%로 나타

나는 등 상대적으로 투표에 부정적인 답변은 5% 수준에 그쳤다. 지역별로는 광주시 응답자의 94.7%(반드시 투표 67.3%, 아마 투표 27.4%), 전남도 응답자의 95.2%(반드시 투표 65.6%, 아마 투표 29.6%)가 투표 의향을 보였다. 이 가운데 '반드시 투표하겠다'는 의향을 내비친 응답자는 광주가 67.3%, 전남이 65.6%로 각각 집계됐다. 연령대별로는 30대가 73.1%로 가장 높았고, 50대(70.8%), 40대(69.4%), 60대(67.3%), 20대(67.2%)가 뒤를 이었다. 70세 이상은 52.6%로 가장 낮았다. 성별로는 남성의 68.8%, 여성의 63.9%



미래 대통령은 누구 22일 광주 서구 농성1동에서 유권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.

최기남 기자 bluesky@gwangnam.co.kr

가 '반드시 투표하겠다'고 답했다. '아마 투표할 것'이라는 응답은 여성 32.0%, 남성 25.3%로 나타났다.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 응답자의 75.3%, 보수 성향 67.1%, 중도 성향 66.8%가 '반드시 투표하겠다'고 응답했다. 잘모르겠다고 답한 이들의 43.7%도 투표 참여 의사를 보였다. 투표의향 별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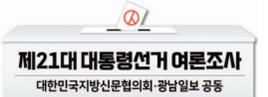
'반드시 투표하겠다'는 응답자 중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81.6%, 김문수 후보는 8.8%, 이준석 후보는 6.9%였다. 전체 평균 지지율(이재명 78.4%, 김문수 10.1%, 이준석 6.8%)과 비교해 볼 때,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더 적극적인 투표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된다. 이 외에도 투표는 '그때 가봐야 알 것 같

다'고 답한 유권자 중 33.0%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, '아마 투표할 것'이라는 응답층에서는 이재명 77.1%, 김문수 12.4%, 이준석 5.6% 순으로 나타났다.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광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씨에 의뢰해 광주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66명(가중 1066명)을 대상으로 19일과

20일 무선 가상번호 100%로 실시됐다. 2025년 4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가중 값 부여했으며(셀가중)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0%, 응답률은 9.9%다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 이현규 기자 gnnews1@gwangnam.co.kr

## ‘당선 가능성’ 이재명 66% vs 김문수 21%

## 지지도·양자 대결서도 ‘李’ 오차범위 밖 선두질주 TV 토론회 시청 후 후보 변경·확정 10%대 그쳐



대통령선거후보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. 또 보수후보 단일화로 양자 대결을 펼칠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어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각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. △대선후보 지지도 22일 광남일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으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46%로 1위를 기록했다. 이어 김문수 후보 34%, 이준석 후보 11%,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1%, '없다' 6%, 모름/응답거절 2% 등으로 조사됐고,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송진호 후보는 0% 대를 기록했다. 권역별로는 광주·전남·전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78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김문수



후보 9%, 이준석 후보 4%, 권영국 후보 1%, '없다' 6%, 모름/응답거절 1%였다. 이밖에 이 후보는 대구·경북과 부산·울산·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후보를 앞섰다. 연령별로는 이 후보는 40대에서 65%로 가장 높았으며, 김 후보는 70세 이상(61%), 이 후보는 18~29세(32%)에 상대적 우위를 보였다. △당선 가능성 '당선 예상 후보'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6%, 김문수 후보 21%, 이준석 후보 2%, 모름/응답거절 11% 등 지지도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이며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권역별로는 광주·전남·전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90%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김문수 후보 4%, 이준석 후보는 4%, 모름/응답거절 5%였다. 성별로는 남성이 이 후보 68%·김 후보 21%, 이 후보 3%였으며, 여성은 이 후보 65%, 김 후보 21%, 이 후보 0%였다. 모름/응답거절은 각각 8%와 14%를 보였다. 연령별로는 이 후보가 40대(80%)와 18~29세(78%), 30대(76%)에서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, 김 후보는 60대(31%)와 70세 이상(39%)에서 30%대로 상대적으로 높았다. 이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1~3%대를 기록했다.



△양자 대결 양자대결을 가정한 질문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으며 앞선 결과를 보였다. 이재명·김문수 맞대결에서는 51%대 41% (없다 7%, 모름/응답거절 1%)로 10%p 차이를 보였다. 권역별로는 광주·전남·전북에서 이 후보는 85%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반면, 김 후보는 13%에 그쳤다. 이 후보는 강원(55%), 인천·경기(55%)에서 과반 지지를 넘었고, 서울에서는 47%로, 42%가 나니 김 후보와 오차범위내에 경쟁을 양상을 보였다. 연령별로는 이 후보는 30대(60%), 40대

(67%), 50대(57%)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. 김 후보는 60대(54%), 70세 이상(61%)에서 강세를 보였다. 이재명·이준석 맞대결은 50%대 38% (없다 10%, 모름/응답거절 2%)로, 10%p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. 권역별로는 광주·전남·전북에서 이재명 후보는 79%를 기록, 이준석 후보(15%)를 압도적으로 앞섰다. 대구·경북과 제주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54%로 조사돼 이재명 후보에 상대적으로 높았다. 성별로는 이재명 후보(남성 47%·여성 53%)에서 이준석 후보(남성 42%·여성 34%)에 앞섰다. 성별에 따라 두 후보간 차이가 엇갈렸다. 연령별로는 이재명 후보는 30대(53%), 40대(66%), 50대(60%)에서 50%가 넘는 응답률을 기록했으며, 이준석 후보는 18~29세(52%)에서 이 후보를 앞섰다. △차기 대통령 우선 해결 과제 차기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'지역 특화산업단지 조성' 27%로 가

장 높았다. 이어 '지역 의료기관 확충' 20%, '중앙 행정기관 지방 이전' 15%, '광역교통망 확대' 12%, '지방 거점대학 육성' 5%, '대형 관광·문화·체육시설 조성' 3%, 기타 8% 순이었다. 모름/응답거절 10%로 나타났다. 광주·전남·전북에서는 '지역 특화산업단지 조성' (27%), '지역 의료기관 확충' (22%) 순이었으며, 제주(42%)와 서울(24%)은 '지역 의료기관 확충'이, 대전·세종·충청은 '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' (21%) 등을 우선순위를 꼽았다. △조사 어떻게 이번 여론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0~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3.1% 포인트다. 표본추출은 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으며, 전화조사원 인터뷰(CATI) 방식으로 진행됐다. 응답률은 15.8%이며,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라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 박정렬 기자 holbul@gwangnam.co.kr 대신협 공동취재단

##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

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 
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
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

